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시방세계

十方世界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 열리던 조계사 현장

3천여 사부대중 구도열기 가득

2월 15일 조계사에서 고우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사진=고영배 기자

아침부터 조계사 경내 청중들 운집
지홍 스님, "최상승선의 생명력 맛보자"
김광삼 사장, "성불고시 급제하길" 기원
입제후 고우 스님 '달 불교' 비유로 법문 시작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닻이 올랐다. 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도심사찰 조계사의 구도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조계사-현대불교신문 주최로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오전 10시)에 열리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의 첫날, 조계사에는 3천여명의 불자들이 대웅전과 앞마당, 극락전을 가득 메웠다. 법회 시작전 9시30분부터 자리를 빼곡히 채운 사부대중은 첫 번째 법사로 등단, '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법문한 고우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의 법문을 경청하며 선의 정수를 만끽했다.

법문에 앞서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경허 선사 이후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조계종이 새로운 선풍을 떨치기 위해서는 제방 선지식들의 사자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회는 감로 법문에 목말라하는 출·재가 수행자들이 자신의 본래 성품을 깨치고, 최상승선의 활발발한 생명력과 탁월함을 맛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오늘 공부 일념으로 법회에 참석하신 3천여 대중은 영산회상에서 함께 공부했지만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한 도반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모든 분들이 재수, 삼수 그만하고 성불고시에 급제할 것을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간단한 입제식이 끝난 후 바로 법단에 등단한 고우 스님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를 들어 선(禪)은 '손가락 불교'가 아닌 '달 불교'이기에 '본래 부처'임을 깨치는 것이 선이라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보는 것이 선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이미 깨달은 존재이며,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선이요, 착각을 깨는 것이 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문 요약 24·25면)

김재경·김철우·오유진 기자

행사장 이모저모

예상 뛰어넘은 현장 열기에 관계자들 놀라

이번 법회에는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 동참한 거사들의 참여 열기가 눈에 띄었다. 조계사 관계자들은 "평소 일요법회에는 대웅전 정도가 찼고 거사들은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법회에 거사들이 많이 보인다"며 깜짝 놀랐다. 특히 조계사 마당 뒤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선 채로 야외TV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켜 진지하게 법문을 듣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한 불자들도 많았다. 친정어머니 김명선(65) 씨와 딸 전은희(40) 씨는 모녀가 사이좋게 법문을 들었다. 전은희 씨는 "스님 말씀을 들으니 동남아시아의 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각지에서 상경, 자료집 3천여 부 동나

이날 준비한 자료집 3천여 부가 순식간에 동이 나고 멀리 부산에서도 참석한 불자가 있을 정도로 수행 열기가 도량을 가득 채웠다.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는 한 스님은 "간화선의 생명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불교의 수행법들이 이번 기회에 건강하게 서로 비교되고, 수행자들이 더욱 탁마하는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한웅(46) 씨는 "평소 뵙기 어려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세권의 자료집을 더 집어가기도 했다.

시원하다·실상 바로 보는 지혜 얻었다….

법회 후 반응은 한결 같았다. "허심탄회한 법문에 마음이 시원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계사에 와서 들으라고 권할 겁니다." 초등학교장을 역임한 강정의(61) 씨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분별심없이 실상을 바로 보는 시각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서장석(56) 씨는 "나이가 들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을 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평소 갖고 있던 의문을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 추천 도서 불티 나게 팔려, 긴급 조달

고우 스님이 법문 막바지에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장경각)을 추천하자 법회가 끝난후, 책방 여시아문과 조계사 봉향각, 인근 불교서점에 진열된 책이 순식간에 팔렸다. 조계사와 여시아문은 도서출판 장경각에 이 책을 긴급히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법회에는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도 감로법문을 들었다. 한국 선사의 법문을 들어보기 위해 일부러 조계사를 찾아 왔다는 네팔 노동자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법회 현장을 계속 촬영하고, 고우 스님의 법문을 적어가며 귀 기울였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과 인종 등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법석에 참석하게 돼 너무나 행복했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에 감사의 글 쇄도

법회가 끝난 후 일간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buddhanews. com)'에는 네티즌 불자들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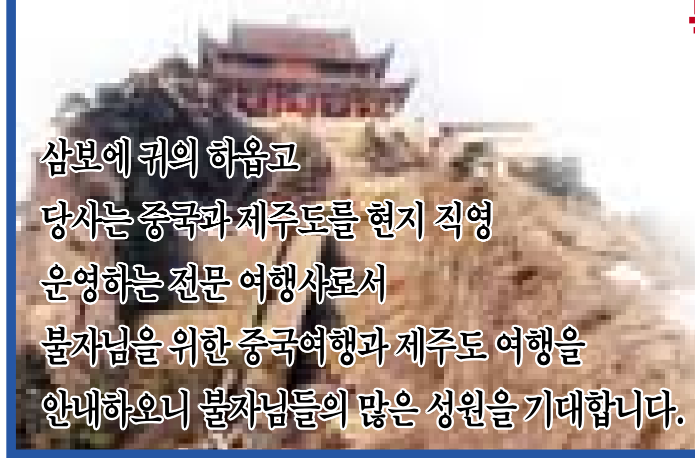
"평소 한국 정통 간화선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던 저는, 정말이지 가슴이 뛰고 벅차오름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죠. 정말 잘 왔구나 하구서. 맨처음 불교를 경전으로 입문했을 때처럼 마구 떨면서 말입니다." (붓다뉴스 ID '강인숙')

"즉설주왈로 답변해 주시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탁마로 많은 재가불자들의 갈증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ID '영광')

KBS 등 방송 언론도 비상한 관심

KBS 위성TV는 입제식에서부터 이날 법회의 전과정을 촬영하고, 고우 스님과 지홍 스님 인터뷰도 담아 2월 18일 '문화뉴스' 시간에 세 번에 걸쳐 상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세계일보, 교계 신문들은 당일 법회 현장의 분위기를 상세히 보도했고 불교방송도 실황 녹음 중계 방송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2~3주전부터 '전국 선원장 초청 대법회'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는 예고기사를 문화면 톱기사로 잇따라 보도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20-8489



특별기획안내 <중국 제1의 관음도량 법회 - 상해/보타산/낙가산 5일>
◎ 출발일 : 2004년 3월, 4월 ◎ 출발지 : 인천국제공항, 김해(부산) 국제공항, 대구 국제공항
◎ 판매가 : 인천출발 - 69만원 / 부산, 대구 - 67만원
- 11명당 1명 무료 적용, 10명이상 출발가능 / 각 단체별 단독 행사(10명이상) 가능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마의 성지 - 티벳/ 낙산대불 8일 169만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천일정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 팁,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 일요일 출발 - 225,000원 ▶ 화, 목, 토 - 248,000원 ▶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전>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록(설록茶밭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지" 관광 → 제주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찰 "약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 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을!!! → "조랑말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읍민속마을 관람 → 점심공양 → "통일불사리대탑(고관사)"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